

5. 국가들과 바벨탑 (10:1-11:9)

(1) 국가 목록 (10:1-32)

1) 서론 (10:1)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10:1/ '셈과 함과 야벳':

* 실제 족보의 기록은 야벳-함-셈 순서로 기록됨.

두 개의 셈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 바벨탑 실패가 국가의 확산을 낳았음을 보여줌.

동시에 셈의 계보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를 향한 강복을 영속시키는 수단이 될 것을 암시.

2) 야벳의 아들들 (10:2-5)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갓딤과 도다님이라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10:2/ '야벳의 아들들':

* 야벳의 후손을 먼저 제시함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함 종족과 셈 종족에 초점을 둠.

* 창세기 계보의 패턴-선택되지 않은 계보가 먼저 제시되고 선택된 씨가 마지막에 상술 됨.

* '7'의 강조-야벳의 분파에 나오는 14개의 이름 (아들 7명과 손자 7명)으로 70개의 이름이 담긴 목록을 시작.

- 10:5/ '나뉘어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근동을 중심으로 북서쪽의 여러 나라들과 지중해의 국가들을 형성.

* 나뉘는 것은 바벨탑 건축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예견.

* 모세의 노래 (신 32:8/ 모든 인류를 나누실 때에)에 다시 등장- 국가들(70)과 이스라엘의 후손(70)의 연관성.

3) 함의 아들들 (10:6-20)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뫼와 납두힘과

14 바드루십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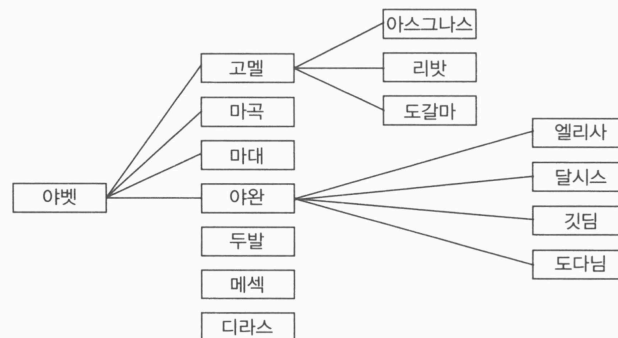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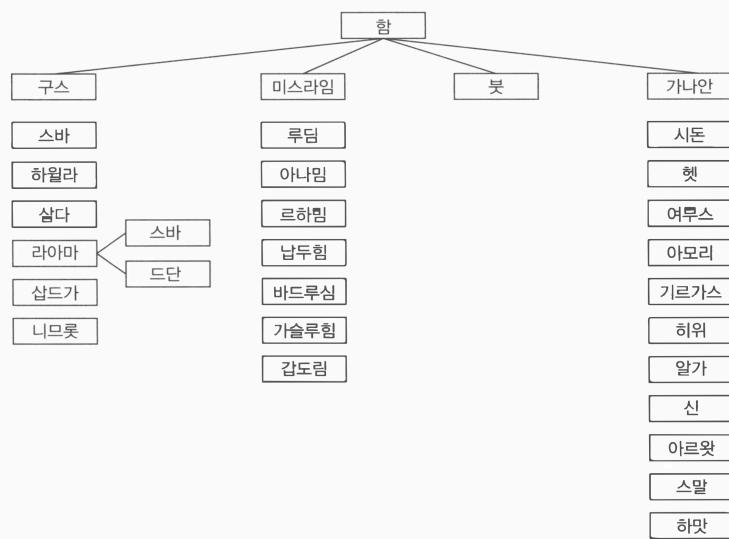
- 10:6/ '함의 아들들':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민족들의 목록-구스, 미스라임, 붓(족보 생략), 가나안.

- 10:7/ '구스의 아들은 스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
 - * 스바는 10:28에서 셈의 후손으로 언급. '하월라', '스바와 드단'이라는 이름도 공유. 밀접한 관계임을 암시.
- 10:8-9/ '니므롯': 고대 이스라엘에 주요 대적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도시 중심지의 선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
 - '세상에 첫 용사라': 니므롯이 지배력을 이룬 수단은 점증적 확산이 아닌 공격력-고대 근동의 제국의 시초.
 -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 바벨탑 사건(11:1-9)과의 어휘상 관련성-니므롯에 대한 부정적 평가.
- 10:10-12/ '그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중요성 순서.
 - '시날': 고대의 수메르와 아카드로 알려진 바벨론 지역을 포함.
 - '앗수르... 니느웨': 앗수르-니므롯의 땅(미가 5:6).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의 시초.
- 10:13-14/ '미스라임': 애굽의 후손. 아프리카 민족들과 소아시아 민족들.
 - '블레셋': 블레셋의 기원은 감돌(크레타)로 알려진 반면 가슬루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기원전 12-13세기 초에 등장할 블레셋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연대 문제의 난해함
 - '블레셋'을 해양 민족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단어로 이해해야 함.
- 10:15-19/ '가나안': 열한 집단이 발생- 함종족의 다수 차지.
 - * 지리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고(현대 이스라엘)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기도 함(시리아-팔레스타인 거주).
 - * '아모리'와 혼동되기도 함.
 - '시돈': 베니게의 대규모 도시 중심 중 가장 먼저 등장한 도시.
 - '헷': * 히타이트 제국이나 제국 분열을 견뎌 냈던 북수리아의 히타이트 왕국. 예루살렘- 아모리와 헷의 소유.
 - * 족장 시기 동안 유다의 영역(주로 헤브론)에 거주. 막벨라 굴을 소유(에브론). 에서의 배우자.
 - '여부스': 예루살렘의 거주자.
 - '아모리인': 아브라함과 함께 동부 왕들의 연합을 격파 (14:5-7, 13).
 - '흠어져 나아갔더라': 바벨탑 건설자들이 당할 벌을 예견(11:4, 8-9).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를 반영.
 - '가나안의 경계': 그랄, 소돔, 고모라 등 아브라함의 여정에 등장하는 도시들. 북쪽 지역은 언급되지 않음.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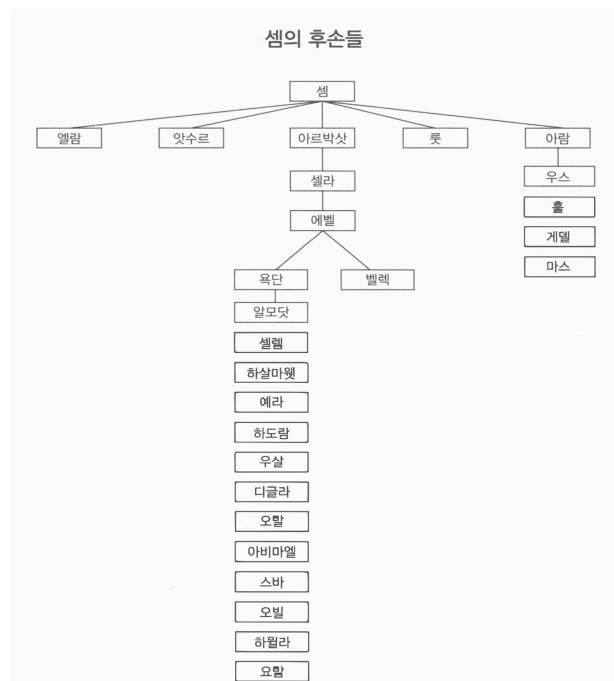
4) 셈의 아들들 (10:21-31)

-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윳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10: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 셈의 4대손인 에벨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예고.
* '히브리'의 어원이 '에벨'이라는 견해가 있음.
- 10:22/ '아람': * '수리아'. 족장들은 하란 지역의 아람 혈통과 가족 관계를 유지 (리브가, 라반, 야곱의 아내들).
* 신명기 26:5- 야곱을 가리켜 '방랑하는 아람 사람'.
- 10:23/ '우스': *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에 아람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언급됨.
* 세일에 거주하는 호리 족장의 아들로 등장(36:28-29).
- 10:24/ '아르박삿은... 낳고': '낳고(알라드)'를 사용함으로 상세하게 묘사됨.
'셀라': 아르박삿의 아들이며 에벨의 아버지. 이후 유다 가문의 족보에 종종 등장 (민 26:20, 대상 2:3; 4:21-23).
- 10:25/ '에벨': 벨렉과 욥단의 아버지.
'벨렉... 나뉘었음이요': '나뉘었다(니플르가)'의 언어유희.
* 전통적으로 이때 바벨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지만, '흠어졌다(푸츠)'와 다른 의미라는 견해도 있음.
- 에벨의 두 가문이 벨렉과 욥단으로 나뉜 것, 또는 수로 산업의 발전으로 해석.
- 10:26-31/ '욕단은... 낳았으니': 욥단의 후손들.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규정하기 힘들.

5) 결론 (10:32)

- 10:32/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국가의 확산은 하나님께서 바벨의 반역을 막으신 결과.



(2) 바벨탑 (11:1-9)

창세기 1:1-2:3과 창세기 11:1-9 사이의 언어와 주제의 공유

- * 사람, 하늘, 하나, 온 땅 등 같은 단어를 공유.
- *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등장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내려가자).
- *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한 강복을 이룰 ‘흩어짐’.
- *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인류의 시도는 하와의 대담함을 연상시킴.
- * 에덴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시날 평원’과 같은 지역
- * 창세기의 기사는 에덴에서 바벨로 순회했으며 두 장소에서 모두 거주민의 추방이 이뤄짐.

창세기 11:1~9의 교차구조

- A.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가졌다 (1)
 B. 거기 (2)
 C. 서로 (3)
 D. 자, 벽돌을 만들자 (3)
 E. 자, 스스로 건설하자 (4)
 F. 도시와 탑 (4)
 X.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5)
 F'. 도시와 탑 (5)
 E'.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었다 (5)
 D'. 자, 혼잡하게 하자 (7)
 C'. 서로 (7)
 B'. 거기서 (8)
 A'. 온 세상의 언어 (9)

바벨 사건에 사용된 언어유희 - ‘역전의 심판’을 강조.

- 3절: 벽돌을 만들다 (라반) / 내려가자 (나발)
 - 9절: 바벨 (신들의 문) / 혼동된 (발랄)

사람이 세운 것을 하나님이 해체함.

바벨 사건의 역설과 풍자

1. 사람의 연합이 야심적인 계획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들의 해산을 초래한 것은 동반자 관계.
 흩어짐에서 비롯되는 안전과 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지만 안전과 힘의 결핍을 우려하여 흩어지게 된 것.
2. 이들의 건축 목표인 ‘하늘에 닿는 것’은 ‘땅으로 내려 온’ 하나님에 의해 좌절.
3. 이들이 구한 것은 ‘이름’이었지만 얻은 것은 ‘바벨(황설수설)’이라는 굴욕적인 이름.
4. 이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확산의 의무가 바벨로 인해 성취됨.

1) 사람들이 연합함 (11:1-2)

-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11:1/ ‘온, 하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공통 되다-하나의 반복, 강조.
- 11:2/ ‘동방으로’: * 동쪽은 창세기에서 분리 사건을 가리킴(에덴, 롯, 그두라의 자식들, 아람으로 간 야곱).
 - 바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복 바깥에 있음.
 ‘시날’: 바벨론. 니므롯이 도시를 세운 곳.
 ‘거류하며’: * 늦에 정착한 가인을 연상하게 함. 노아와 후손에게 내려진 “땅을 채우라”는 명령의 거역.
 *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의 거처를 ‘떠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2) 바벨탑 건축 (11:3-4)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11:3/ '자, 벽돌을 만들자(닐브나)': * 공동체의 협력 표명의 반복. 7절-'혼잡하게 하자(나블라)'로 반복됨.
* 메소포타미아의 가치 있는 업적을 종교적 다신론과 문화적 오만에 대한 조롱으로.
- 11:4/ '성읍과 탑': 성읍과 구별된 탑이 아닌 탑이 곧 도시.
'하늘에 닿게 하자':
* 바벨의 탑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계단으로 여겨짐.
* 인간의 지배의 정당성을 가진 곳은 땅이므로, 바벨탑 건축자들의 동기는 권력을 욕망했던 선조만큼 악함.
'이름을 내자, 흠어짐을 면하자': 건축자들의 의도. 근원적인 두려움을 표현.
* '이름'과 '흠어짐'은 홍수 이후 이야기 진행의 핵심 요소
- '명성 있는 사람들(6:4), '땅을 채우라(9:1)'.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그 이름을 크게 만드심(12:2-3)'. '누가' 의 문제.

3) 하나님의 훈시 (11:5)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11:5/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벨인들의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부과할 전환을 강조.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건설하던 대규모 사업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계획이었는지 드러남.
'사람들(브네 하아담-인류의 아들들)'이 건설하던': 필멸자의 사업 또한 필멸할 것을 보여주는 표현.

4) 바벨탑 건축의 중단 (11:6-7)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11:6-7/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 한 민족으로써 편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복의 전조가 되는 민족의 다양성이 아닌 단일 민족으로 남게 되었음.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개입은 형벌인 동시에 예방 수단 (에덴에서의 추방과 동일).
'우리가': 바벨 사건을 에덴 사건에 비추어 읽게 함.
'혼잡하게 하자(발랄)': '바벨'의 언어 유희.

5) 사람들이 흠어짐 (11:8-9)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11:8/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 바벨의 권력 문화의 해체.
* 흠어진 사람들은 복종을 통해서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안전을 다시 얻을 수 있음.
*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은 그들의 지명된 족장 아브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
* 이 원리는 이방인들이 지명된 인물 (이스라엘과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진리로 확정.
- 11:9/ '그러므로': 바벨 사건의 결과. 시날의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있음.
'바벨이라 하니':
*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바벨(신들의 문)' 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발랄)케 하심.
*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바벨과 같이 반드시 무너질 성읍임을 가르침.